"救國 큰스님 소리로 만나세요"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발표회 갖는 이용배씨 6월 호국의달

21일 문예회관서 두차례 공연
소리 입문 50년 '회향무대'

"사명대사는 도력높은 선사로서도 이름높지만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뇌리에 깊이 인상지워진 것은 왜군들을 상대로 싸워 나라를 지키고 또 일본에 강화사절로 가서 조선포로 3500명을 구출해 온 구국의 승군장이라는 점일 겁니다."

교계 최초로 '사명대사' 판소리 발표회를 갖는 원로 국악인 용담(龍潭) 이용배 거사(66·전통음악연구회장)는 올해 판소리 입문 50년을 맞기에 이번 공연이 더욱 뜻깊다고 말한다. 오는 21일 오후 3시·7시 두번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판소리 '사명대사'는 전통 무형문화재인 판소리로 사명대사의 지극한 불심에서 나온 구국행(行)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해와 6월 호국의 달을 빛내는 값진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사명대사'에는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개오(開悟), 운수행, 서산대사와의 만남, 일본과의 강화조약, 열반 등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1시간여에 걸쳐 구성진 판소리에 실린다. 또 살풀이(강남기) 진도북놀이(무형문화재 18호·임경자외 9명) 등 전통춤공연도 함께 열린다.

이용배거사는 17살때 당시 국악계의 거목 임방울씨의 문하에 들어가 3년여에 걸친 피나는 수련을 거쳐 득음(得音)의 경지에 오른 전통예술인. 사명대사와의 인연은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국극사 '만리장성' 단원으로 있을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요. 돈과 인기가 높아가자 아집과 자만도 높아가 마침내 병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금정사에 계신 경월스님을 뵈었는데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간파해 내시더니 책을 하나 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게 이광수의 소설 〈사명대사〉였습니다."

선사로 승군으로 또 효심지극한 자식으로 일생을 뜨겁게 산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았다. 그때부터 밀양의 사명대사 생가를 비롯 출가사찰인 직지사, 스님의 유물이 전시되어있는 표충사, 열반지 해인사 등 스님과 관련된 사찰들을 수차례 순례한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 사명대사의 일생을 드라마화, 2장의 레코드로 만들어 전국사찰에 보냈다. 불교에 심취한 이거사는 이후 '목련존자' '석가모니' 등을 작창(作唱), 음반으로 펴 냈다.

"범종소리는 한번 치면 여음(餘音)이 9번이나 뒤를 잇습니다. 판소리도 범종소리와 같이 여운이 있어야 감동을 주겠지요." 전강 구산 춘성스님'등 큰스님들을 친견하며 불교공부를 했다는 이거사는 내년엔 로마교황청의 초청으로 한국 판소리의 진수를 세계에 들려줄 계획.

판소리 '사명대사'는 마지막에 전 출연자가 나와 관객들과 함께 합장, '나무아미타불' 염불로써 장엄한 막이 내려진다. 이용배거사는 '사명대사' 판소리 테이프도 제작했다.

예매처
현대불교 (02)732-1522
여시아문 (02)737-0695
녹수청산 (02)736-3782
대 불 광 (02)738-1117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88〉

선경에 있는 절

寺在仙區俗否遐 절은 신선 구역, 속세 자취 멀고
(사재선구속종하)
鶴臺秋晩景偏多 학대의 늦가을 경치 유난히 흐드러져
(학대추만경편다)
溪含瑤瑟臨窓奏 시내는 거문고 안고서 창기에서 연주하고
(계함요슬임창주)
山被錦衣向日誇 산은 비단 옷 입고 햇살 보며 자랑하다
(산피금의향일과)
紅影滿江楓老岸 붉은 그림자 강에 가득, 언덕에 늙은 단풍
(홍영만강풍로안)
綠陰迷戶竹低阿 녹음은 창문을 가려, 언덕에 나즉한 대나무
(녹음미호죽저아)
數聲淸夜來何處 맑은 밤 어디에서 오는 몇 마디의 울림은
(수요청야래하처)
千里征雁月下過 천리로 가는 기러기 달 아래 지나다
(천리정안월하과)

이 시는 천경대사의 '가을 경치(秋景)'라는 시이다. 산사의 가을 경치를 담담하게 읊고 있다. 신선 구역과 속세 자취는 원래가 떨어져 있는 것이니 역시 사실 그 자체를 말한 것이지만, 산 속의 누대라 해서 가을 경치가 더 풍부할 이유야 없다. 그렇지만 깊숙히 감추어져 있어 멀리 찾아온 손님에게는 신선 경계 같기에 더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또한 상례다.

다음 시구들은 산 속이기에 더 맑게 느껴지는 가을 경치를 실감있게 표현하였다. 시냇물의 울림은 비파나 거문고소리처럼 아름답다. 그것도 창가에 다가와 더욱 반갑게 연주한다.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산골이다.

햇빛에 비쳐져 더 아름답겠지만, 시의 구성은 단풍이 오히려 햇빛에다 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산사의 넉넉한 표현이다. 자랑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자랑이다.

다음 구에서 이 단풍을 받아 강에 비친 모습으로 상황을 달리 설명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다시 단풍을 읊는 것은 시의 구성으로는 좀 흠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 구에서는 산에 있는 단풍의 원 모습을, 해라고 하는 저 허공의 공중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서는 실제의 단풍보다도 그림자인 허상으로 처리하여 강물에 비친 붉은 빛을 서술하였으니, 상하 공간으로의 대칭이다. 이 점으로 어색한 소재의 흠을 다소 덜게 하였다.

그러면서 대구(對句)에서 대나무의 푸르름과 대조시킨 색깔의 조화가 대구(對句)로서의 구성에 걸맞게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풍경의 산사도 밤이 되면 더더욱 고요하다. 이러한 고요함을 깨는 기러기의 울음 역시 적막과 요란의 대칭이면서 '달 아래 지나다'의 결론이 마치 밤 하늘의 풍경을 사실화로 재생시킨 느낌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 세미나 연다

10·11일 세종문화회관

해방이후 반세기동안의 한국 매장문화재 발굴현황을 돌아보는 대규모 세미나가 10,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아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와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매장문화재 발굴의 현황과 문제점(이선복) △제2주제-유적 유물 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정징원) △제3주제-구제발굴 위주의 발굴현황과 개선책(윤덕향) △제4주제-발굴경비 표준화, 현실과 당위(조영현) △제5주제-문화재 지표조사의 시행현실과 대책(이강승) △제6주제-발굴전담 법인체의 운영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백규) △제7주제-현행 매장문화재 관련법령 제도 기관의 문제점과 대책(배기동) △제8주제-지자체의 매장문화재 행정실무현황과 과제(정연우) △제9주제-현장 실무자들이 보는 발굴제도에 관한 제언(이상길) △제10주제-현행 발굴허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고수길) △제11주제-일본의 매장문화재 현황(고도 타다시)

장천 1호분 예불도 행방묘연

"중국·북한등 산재 고구려 고분벽화 도난·훼손 심각"

현재 남아있는 한국 불상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천1호분(중국 집안시)의 예불도(禮佛圖) 도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도굴과 습기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밝혀졌다. (사)고구려연구회(이사장 서길수)가 5월23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장천1·2호분의 고분벽화가 도난당한 것을 비롯 북한내 고구려 고분벽화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5년 여름 도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천1·2호분은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특히 내부 벽화가 통째로 없어진 1호분에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불상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예불도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2호분의 경우는 미공개인 관계로 확실한 피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전체가 연꽃장식으로 뒤덮여 있어 비교적 자료가 적은 고구려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난 95년 도굴로 인해 행방이 묘연한 장천 1호분 예불도.

서길수교수(서경대)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국의 돈황벽화에 버금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석 기자

해인사 경판전 35년만에 보수

8월말부터 2년동안 기와 전면교체

낡은 기와로 인한 고려 팔만대장경의 피해방지를 위해 신비의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국보 52호)이 오는 8월말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다.

해인사(주지 보광)는 장마와 무더위가 끝나는 8월말부터 경판전의 지붕기와를 전면 교체하는 대불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경판을 꽂는 판가(板架)와 서까래 등도 점검, 보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불사는 지난 62년 기와를 전면 교체한지 35년만의 일이다.

보수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측도 "기와가 너무 낡아 비가 새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어 대장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인사는 작업 도중 대장경 경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붕위에 덧집을 만들고, 기와를 조금씩 걷어내 공기나 비바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향후 2년여가 걸릴 보수작업에는 보통기와 1.5배 크기(42×45㎝)에 달하는 특대기와(特大瓦) 2만여장이 들어가는 등 총 8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소식

경북 문화재대관 발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 이의근)가 오는 99년까지 도비 7억원을 들여 경상북도 문화재대관을 발간한다. 국가지정문화재 499점과 도 지정문화재 824점 등 총 1323점의 도내 문화재가 수록되는 문화재대관은 천연색판 전 5권 총 3천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2권에는 금속 및 공예, 목조건물, 석탑불상등 국보와 보물(유형문화재)이, 3권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4권에는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를 가옥 복식 자수 음악 무용 등 12편으로 분류해 실으며, 5권에는 문화재자료를 6편으로 구분하여 묶는다.

문화재 보존 관리 50년전

문화재관리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반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화재 보존 관리 50년' 특별전시회를 8일까지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재관리국 각 실·과에서 발간한 도서 1천1백9권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 전시하고 있다.

단오날 영산재 시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회가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스님) 주최로 9일(단오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다. 송암 벽응 일응 스님 등 인간문화재 스님들과 보존회 스님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시연회에서는 시련 대령 관욕 식당작법 초할향 등 영산재 전과정을 보여준다.

도신스님 찬불가요 발표

노래로 포교하는 도신스님이 3집 앨범 출반에 맞춰 찬불가요발표회를 갖는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7·8일 양일간 오후 6시 연강홀에서 갖는 발표회에는 '구도' '무상' 등 10여곡이 소개된다. 이번 공연에는 박용호(대금) 곽태규(피리) 민의식(가야금) 김영미(해금)씨 등이 협연한다. (02)3472-8886

제2회 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세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지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